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서양인들은 세계가 완전한 천상계와 불완전한 지상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천체들은 5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원운동을 하며, 천체들을 움직이는 힘은 신의 의지라고 생각했다. 상상에 의존하는 이러한 세계관은 천체들을 직접 관측하고, 망원경으로 확인하면서 서서히 흔들렸다. 사람들은 머리로만 생각해 왔던 이상적 질서들이 '경험'을 통해 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근대 경험론은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경험론이란 인간의 인식이나 지식의 근원을 인간의 지각, 즉 경험에서 찾는 철학적 입장을 가리킨다. 굳이 '지혜는 경험의 딸이다.'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이 아니더라도 경험이 어떤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경험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험론의 전통은 멀리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키레네 학파까지 올라가지만, ㉠ 합리론에 대립되는 본격적인 ㉡ 경험론은 프랜시스 베이컨이 체계를 세웠다. 사실 이 두 사상은 모두 자연과학 발전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발전의 핵심 동력은 다르게 파악하며 철학적 토대를 닦아나갔다. 경험론자들은 관찰과 실험에 입각한 귀납적 방법이, 합리론자들은 이성적 사고에 기반을 둔 연역적 추론이 각각 자연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여겼다.

경험론자들은 귀납법을 통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보편적인 법칙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경험론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장소를 걸어서 지나친 여행자와 기차를 타고 지나친 여행자를 생각해 보자. 장소는 동일하지만 두 여행자가 그 장소를 바라봤던 경험은 분명 다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험의 세계는 절대적으로 확신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있어 의미 있고 근거 있는 인식은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경험론의 입장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근대 이후 철학들은 경험론에서 바라본 경험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그 의미를 나름대로 확장했다. 칸트의 관념론은 '정신의 경험'까지, 라캉의 구조론은 '무의식의 경험'까지 의미를 넓힌 것이다. 이처럼 근대 이후 철학의 상당 부분은 경험론의 영향 아래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험론의 종류
- ② 경험론의 개념
- ③ 경험론의 배경
- ④ 경험론의 한계
- ⑤ 경험론의 의의

1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이성적 사고에 기반한 연역법을 사용한다.
- ② ㉡은 귀납적 방법을 통해 보편적 지식을 추구한다.
- ③ ㉡은 머리로만 생각해 왔던 이상적 질서를 부정한다.
- ④ ㉡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지식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
- ⑤ ㉠은 ㉡과 달리 근대 자연과학의 발전에서 영향을 받았다.

20. <보기>의 사례를 윗글에 활용하려고 할 때, 그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여러 명의 장님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 보고 각자 코끼리에 대해 말해 보도록 했다. 배를 만진 이는 장독, 등을 만진 이는 평상, 다리를 만진 이는 절구와 같다고 제각기 다른 말을 했다. 이에 왕은 “보아라. 코끼리는 하나이거늘 저 장님들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로 알고 있구나. 진리를 아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 ① 경험이야말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례로 활용한다.
- ② 경험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겸허한 태도를 지녀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로 활용한다.
- ③ 지각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험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고에 미치지 못함을 증명하는 사례로 활용한다.
- ④ 하나의 대상이 그 의미를 확장해 나가면서 차츰 철학의 발전을 유도하게 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한다.
- ⑤ 개별적인 개인의 경험을 모두 모은다면 보편적인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로 활용한다.

◆ 04년 11월 고2 35~39번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철학(philosophy)이라는 말의 어원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서양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철학을 애지학(愛智學: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고 옮기기도 한다. 이 말을 처음 쓴 소크라테스는 당시 스스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만하며, 지식의 소매상 노릇을 하던 소피스트[지자(知者)]들을 통렬히 비난했다. 이들과는 달리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지식을 이미 소유한 자가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고 동경하며 갈망하는, 다시 말하자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 즉 필로소포스[철학자]라고 했다.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가능하다. 사랑이란 무소유의 상태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끊임없이 그것을 그리워하고 갈망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하여튼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철학은 지혜의 무소유 상태에서부터 지혜의 소유 상태로의 과정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며, 그런 뜻에서 철학은 언제나 진행형이며 결코 완결될 수 없는 학문인지도 모른다. 스스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知的) 교만은 이런 의미에서 '철학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철학자의 일차적 자격 요건이 바로 지적인 겸손이다. 지적으로 겸손한 자만이 철학이라는 고귀한 활동에 동참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다. 자기가 진정 아는 것이 없다는 자각을 '무지(無知)의 지(知)'라고 한다. 이러한 자각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독단과 편견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크고 작은 우상(偶像)들을 남김없이 파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우상의 파괴론을 철학적으로 전개한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다. 그는 신의 존재 등 몇 가지 가정(假定)을 자명한 명제로 받아들이고 이 전제로부터 연역 논증을 통해 각종 진리들을 도출하는 중세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반기를 들었

다. 즉 **진정한 지식**은 모든 독단과 편견을 버린 후 ㉠경험에 바탕을 둔 귀납적 논증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진정한 지식을 갖는 데 방해가 되는 인간의 편견인 이상을 '종족(種族)의 이상', '동굴의 이상', '시장(市場)의 이상', '극장(劇場)의 이상'이라고 부르고, 이 네 가지 이상을 파괴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종족의 이상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간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으며, 무엇이든 의인화해서 생각함으로써 하느님마저도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소는 소의 형상을 한 하느님만을 생각할 것이며, 말은 말의 형상을 한 하느님만을 생각할 것이라고 한다.

동굴의 이상은 개인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저마다 상이한 인생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세상 모습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집하며 서로 옳다고 우기게 된다. 각자 자신의 동굴을 파고 들어가 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만의 동굴에서 빠져 나와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겸허한 태도로 타인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시장의 이상은 말로 인해 생겨나는 갖가지 이상을 말한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을 상징한다. 그곳에서는 실제로 없는 사실인데도 말만 생겨나 떠돌게 됨으로써 편견이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극장의 이상은 권위로 인해 생겨나는 이상을 말한다. 극장 무대에서 배우들이 분장을 그럴 듯하게 하고 조명을 휘황하게 비추면 우리는 그것이 현실인 양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어떤 주장이건 그것에 권위의 빛을 비추게 되면 우리는 쉽게 믿어버리는 버릇이 있고, 그 때문에 편견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 같은 갖가지 편견과 이상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철학적 자기 반성과 성찰, 그리고 독자적인 사고와 홀로서기를 향한 과감한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35.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철학은 연역 논증을 통해 진리를 도출한다.
- ②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③ 철학자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지적 겸손 여부이다.
- ④ 이상의 파괴는 무지에 대한 자각을 하기 위한 것이다.
- ⑤ 철학은 지혜를 소유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36. 베이컨이 말한 네 가지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인간이 만물의 척도(尺度)라고 믿는 경우
- ②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여 우산을 가지고 나갔으나, 비가 오지 않은 경우
- ③ 백두산 천지에 괴물이 산다는 소문을 듣고, 그 괴물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 경우
- ④ 일반인이 그린 그림을 유명 화가가 그렸다고 하니, 곧바로 높은 가격에 팔린 경우
- ⑤ 물이 든 투명 유리컵에 꽂혀 있는 끈은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므로 젓가락이 굽은 것이라고 믿는 경우

37. ㉠의 추론 방식이 적용된 것은?

- ① 꿈은 현실을 거꾸로 보여준다고 한다. 그러므로 어제 내가 친구와 다투었던 꿈은 그 친구와 더 친해진다는 꿈일 것이다.
- ② 나는 성적이 떨어지면 우울해 하고, 성적이 오르면 싱글벙글 한다. 이로 보아, 나의 기분은 성적에 좌우되는 것임이 틀림 없다.
- ③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은 모두 운동을 싫어한다. 내가 알고 있는 철수는 공부를 잘한다. 그러므로 철수는 운동을 싫어할 것이다.
- ④ 안개가 자욱히 끼면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 비행기가 떴다. 그러므로 오늘은 안개가 자욱히 끼지 않았을 것이다.
- ⑤ 순발력과 주력이 뛰어난 사람은 훌륭한 육상 선수가 된다고 한다. 내 동생인 상수도 순발력과 주력이 뛰어나다. 그러므로 상수도 훌륭한 육상 선수가 될 것이다.

38. <보기>에서 **진정한 지식**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보 기> —

베이컨은 자신은 ㉠양식을 모으는 개미처럼 사실들만 끌어 모으는 경험주의자들도 아니고,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는 것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끌어내어 이론을 세우는 합리주의자도 아닌, 제3의 방식인 '꿀벌의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벌들은 꽃으로부터 ㉢재료를 모으나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키고 ㉣소화시킨다고 한다. 것처럼 자신의 학문적 작업은 단순한 경험 자료의 수집에 의한 일반화가 아니고, 천성적 ㉤원리에 의해 나오는 것도 아닌, 경험 자료를 모아서 소화시켜 새로운 학문의 기틀을 삼는 방식이라고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9. ㉡의 뜻에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그는 책을 가지러 서재에 갔다.
- ② 그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였다.
- ③ 그는 매사에 의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
- ④ 두 나라는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 ⑤ 우리 고장에는 해마다 10월이면 민속 행사를 가진다.

[21 ~ 2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7~18 세기의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이에 대한 답을 경험에서 찾으려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의 범주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로크는 경험하기 전에 정신에 내재하는 타고난 관념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만 지식을 ㉠ 획득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정신은 그 어떤 관념도 없는 백지와 같은 상태인데 경험을 통해 물질에 대한 감각을 지각함으로써 관념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관념이 지식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고 과정을 통해 로크는 물질을 지식의 근원으로 여겨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로크는 물질의 실재(實在)를 ㉡ 인정하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감각, 관념 등의 사고 과정과 그 과정을 주관하는 정신의 실재도 인정하였다.

버클리도 로크의 인식 분석이 오히려 물질의 실재를 부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버클리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감각의 다발'일 뿐이라고 했다. 예컨대 우리가 먹는 밥은 우선 시각, 후각, 촉각, 다음에는 미각, 다음에는 체내의 ㉢ 포만감일 뿐이다. 만일 우리에게 감각이 없다면 우리에게 밥이라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인식하는 밥은 감각의 다발 또는 기억의 다발이므로 정신의 상태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실재는 정신만이 남게 된다.

흠은 버클리가 외부의 물질을 부정한 방식을 그대로 우리 내부의 정신에 적용하여 사고 과정을 ㉣ 주관하는 정신도 부정하였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감각, 기억, 개별적 관념만 지각할 수 있을 뿐이고 사고 과정을 주관하는 정신을 지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 과정을 주관하는 정신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흠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을 감각, 기억, 개별적인 관념 등의 영역으로 한정하였다.

흠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과학적 지식마저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과학적 지식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개별적 사실로부터 인과 관계나 법칙을 찾아내어 ㉤ 체계화한 결과이다. 우리는 과학적 추리를 할 때마다 자연이 한결같은 점을 가정하고 있는데, 그 가정은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과 관계나 법칙을 지각할 수 없고 다만 경험의 직접적인 대상인 특정 사건과 그런 사건의 연속만을 지각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흠에게 필연성을 갖고 있는 지식은 수학 공식만이 남는다. 수학 공식이 항상 참된 이유는 동어 반복—술어가 이미 주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3 \times 3 = 9$ 는 3×3 과 9가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 지식이다. 따라서 지식은 수학적 지식과 직접적 경험에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1.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의 범주-경험주의 철학자들의 견해 차이를 중심으로
- ② 물질과 정신의 관계-경험주의 철학자 버클리를 중심으로
- ③ 인과 관계의 필연성-수학과 과학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④ 경험의 의의-경험주의 철학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⑤ 인식의 과정-서양 철학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로크는 지식의 근원인 물질의 실재를 인정하였다.
- ② 로크는 감각, 관념 등의 사고 과정을 주관하는 정신의 실재를 인정하였다.
- ③ 버클리는 물질에 대한 감각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였다.
- ④ 버클리는 경험적으로 지각하지 않아도 물질의 실재를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⑤ 흠은 사고 과정을 주관하는 정신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23.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흠의 견해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지금까지 관찰한 결과 겨울에는 날씨가 추웠다. 자연은 한결같은 것이므로 ㉣ 겨울이 되면 항상 날씨가 추울 것이다.

- ① 한결같은 현상이므로 과학적 지식이다.
- ② 인과 관계로부터 추론한 사건의 연속이다.
- ③ 알 수 없는 가정으로부터 추론한 결과이다.
- ④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개별적 사실이다.
- ⑤ 과학적 추리의 대상이므로 인식의 대상이다.

24.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얻어 내거나 얻어 가짐.
- ② ㉡: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 ③ ㉢: 넘치도록 가득 차 있는 느낌.
- ④ ㉣: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함.
- ⑤ ㉤: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

◆ 18년 3월 고1 16~19번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세기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 흄은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했던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비판하고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철학 이론을 구축하려 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험만을 중시한 나머지, 그는 과학적 탐구 방식 및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 흄은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다.

흄은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이를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인상은 오감(五感)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이나 감정 등을 말하고, 관념은 인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가령, 혀로 소금의 '짠맛'을 느끼는 것은 인상이고, 머릿속으로 '짠맛'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이다. 인상은 단순 인상과 복합 인상으로 나뉘는데, 단순 인상은 단일 감각을 통해 얻은 인상을, 복합 인상은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인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짜다'는 단순 인상에, '짜다'와 '희다' 등의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소금의 인상은 복합 인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단순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단순 관념, 복합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복합 관념이라 한다. 흄은 단순 인상이 없다면 단순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황금 소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복합 인상은 없지만, '황금'과 '소금' 각각의 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합 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 관념은 복합 인상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흄은 '황금 소금'처럼 인상이 없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흄은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인과 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때 갖는 관찰자의 습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의미하는 것처럼 인과 관계는 필연적 관계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사건'과 '배가 떨어지는 사건'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사건'이 배가 떨어지는 사건을 야기했다.'라는 생각은 추측일 뿐 두 사건의 인과적 연결 관계를 관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인과 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런 방법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은 적합하지 않다고 흄은 비판하였다.

또한 흄은 진리를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전통적인 진리관에서는 진술의 내용이 사실(事實)과 일치할 때 진리라고 본다. 하지만 흄은 진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소금이 짜야 한다. 그런데 흄에 따르면 우리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금이 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은 '내 입에는 소금이 짜게 느껴진다.'라는 진술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비록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흄의 입장이다.

이처럼 흄은 경험론적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한 나머지, 과학적 지식조차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성만 중시했던 당시 철학 사조에 반기를 들고 경험을 중심으로 지식 및 진리의 문제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근대 철학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A]

1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데카르트는 이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였다.
- ② 전통적 진리관에 따르면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③ 흄은 지식의 탐구 과정에서 감각을 통해 얻은 경험을 중시하였다.
- ④ 흄은 합리론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철학 이론을 구축하려 하였다.
- ⑤ 흄은 인상을 갖지 않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17. [A]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상이 없는 지식은 진리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 ② 이성만으로는 진리를 탐구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 ③ 실제 세계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 ④ 주관적 판단으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 ⑤ 경험을 통해서도 진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18. 윗글에서 언급된 '흄'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과를 보면서 달콤한 맛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에 해당한다.
- ② 사과를 보면서 '빨개'라고 느끼는 것은 복합 인상에 해당한다.
- ③ 사과의 실제 색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과는 빨개.'라는 생각은 '내 눈에는 이 사과가 빨갱게 보여.'라는 의미일 뿐이다.
- ④ 사과를 먹는 것과 피부가 고와지는 것 사이의 인과적 연결 관계를 관찰할 수 없다.
- ⑤ '매일 사과를 먹으니 피부가 고와졌어.'라는 생각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습관적 기대에 불과하다.

19. <보기>의 사례를 통해 ‘흠’의 주장을 반박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아래 그림과 같이 무채색을 명도의 변화에 따라 나열한 도표가 있다고 가정하자. 도표의 한 칸을 비워 둔 채 어떤 사람에게 “5번 빈칸에 들어갈 색은 어떤 색인가요?”라고 질문하였다. 그 사람은 빈칸에 들어갈 색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주변 색과 비교하여 그 색이 어떤 색인지 알아맞췄다.

- ① 세계는 우리의 감각 기관과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 ②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단순 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
- ③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필연성을 갖게 된다.
- ④ 관념을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
- ⑤ 외부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14-9평 A형 26~27번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관은 세계의 존재와 본성, 가치 등에 관한 신념들의 체계이다.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준거인 세계관은 곧 우리 사고와 행동의 토대가 되므로, 우리는 최대한 정합성과 근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신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혼란시킬 것이므로 세계관에 대한 관심과 검토는 중요하다. 세계관을 이루는 여러 신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신념은 ‘세계는 존재한다.’이다. 이 신념이 성립해야만 세계에 관한 다른 신념, 이를테면 세계가 항상 변화한다든가 불변한다든가 하는 등의 신념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실재론은 이 근본적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주장한다. 내가 만들어 날린 종이비행기는 멀리 날아가, 볼 수 없게 되었다 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명확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반실재론자는 이 상식에 도전한다. 유명한 반실재론자인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관한 주장을 편다. 그에 의하면 ‘주관적’ 성질인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은 물론,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겨지는 형태, 공간을 차지함, 딱딱함, 운동 등의 성질도 오로지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이다. 세계 속의 대상과 현상이란 이런 속성으로 구성되므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버클리의 주장은 우리의 통념과 충돌한다. 당시 어떤 사람이 돌을 차면서 “나는 이렇게 버클리를 반박한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는 날아간 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버클리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버클리를 비롯한 반실재론자들이 부정하는 것은 세계가 정신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신념이다. 따라서 돌을 찬 사람은 그들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반실재론이 제기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증의 성패를 떠나 반실재론자는 타성에 젖은 실재론적 세계관의 토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관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반복은 그 자체로 인간 지성이 상호 소통하면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26.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재론과 반실재론 사이의 논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 ② 세계관은 우리의 사고나 행동의 토대가 되는 신념 체계이다.
- ③ 실재론과 달리 반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④ 세계가 존재한다는 신념은 세계가 불변한다는 신념보다 더 근본적이다.
- ⑤ 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며 그것의 존재는 정신과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

27. **버클리**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번개가 치는 현상은 감각 경험으로 구성된 것이다.
 ㄴ. ‘비둘기가 존재한다.’는 ‘비둘기가 지각된다.’와 같은 뜻이다.
 ㄷ. 우리에게 지각되는 책상은 우리의 인식 이전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
 ㄹ. 사과와 단맛은 주관적인 속성이며, 둥근 모양은 객관적 속성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 05 수능(예비) 43~46번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감각하는 사물들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내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이 책상이 내가 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지, 혹시 이것들이 상상의 산물은 아닌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감각을 넘어서 물리적 대상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길은 없다.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보여 주었던 이, 인생이 하나의 긴 꿈에 불과하다는 ‘꿈의 가설’에서 어떤 ㉠ 논리적 모순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 논리적 가능성이 ㉢ 진리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꿈의 가설을 굳이 진리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도 없다.

(나) 꿈의 가설보다는, 나의 감각들은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들이 나에게 작용하여 만들어 낸 것들이라는 ‘상식의 가설’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들을 더 잘 설명한다. 개 한 마리가 한 순간 방 한편에서 보였다가 잠시 후 방의 다른 곳에 나타났다고 해 보자. 이 경우에 그것이 처음 위치에서 일련의 중간 지점들을 차례로 통과하여 나중 위치로 연속적인 궤적을 따라서 이동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개가 감각들의 집합에 불과하다면 내게 보이지 않는 동안에는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꿈의 가설에 따르면 그 개는 내가 보고 있지 않은 동안에 존재하지 않다가 새로운 위치에서 갑자기 생겨났다고 해야 한다.

(다) ㉣ 그 개가 내게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면, 내 경우에 미루어 그 개가 한 끼를 먹고 나서 다음 끼니 때까지 어떻게 차츰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가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동안에도 점점 더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따라서 나의 변화하는 감각 경험은, 실제하는 개를 표상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되지만, 단지 나에게 감각되는 색깔과 형태들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하면 전혀 설명할 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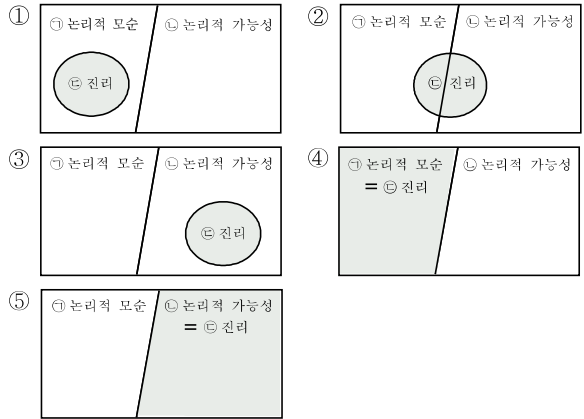
(라) 사람의 경우 문제는 더 분명하다. ㉤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듣는 소리가 어떤 생각, 즉 내가 그러한 소리를 낼 때에 갖는 생각과 비슷한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을 택하라’는 원칙에 따르면, 나 자신과 나의 감각 경험을 넘어서 나의 지각에 의존하지 않는 대상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상식의 가설을 택하는 것이 합당하다.

- 러셀, 철학의 문제들 -

43. 위 글의 논증 과정을 잘못 정리한 것은?

- (가)로부터 → 상식의 가설을 증명하는 방법은 없다. ①
- (나)~(라)로부터 → 꿈의 가설은 나의 감각 경험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②
- (라)로부터 → 상식의 가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한다. ③
- 가설 선택의 원칙 →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을 택하라. .. ④
- 결론 → 그러므로 상식의 가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⑤

44. (가)의 설명에 따라 때, ㉠~㉤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1점]



45. ㉣와 ㉤에 공통된 추론 방식은? [1점]

- ① 사람들의 말에 기대어 추측하였다.
- ②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추하였다.
- ③ 가정을 세우고 그 귀결을 검토하였다.
- ④ 직관을 통하여 사례의 본질에 도달하였다.
- ⑤ 알려진 진리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연역하였다.

46. 위 글과 <보기>의 대비점을 가장 잘 지적한 것은?

—<보 기>—

인간은 본능적으로 독립적인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위 글의 논증을 접하기 전부터, 반성 능력을 갖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 ① 위 글은 감각을 넘어서려고 하지만, <보기>는 감각을 본능적인 것으로 본다.
- ② 위 글은 감각을 통하여 믿음에 도달하지만, <보기>는 믿음을 통하여 반성에 도달한다.
- ③ 위 글은 상식을 확고한 사실로 간주하지만, <보기>는 상식에 대하여 회의를 제기한다.
- ④ 위 글은 합당한 가설을 찾는 데 실패하지만, <보기>는 그러한 가설에 성공적으로 도달한다.
- ⑤ 위 글은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논하지만, <보기>는 그러한 믿음이 선천적으로 주어졌 것이라고 본다.

◆ 14 수능 B형 19~21번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든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 육체적 사건은 ㉡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19.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신 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 ②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④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 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준다.

20. ‘평행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 ③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 ④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

21. <보기>는 ‘부수 현상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과 ㉡에 대응하는 것을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 조수 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이때 조수 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달의 모양은 세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 ‘육체적 사건’	㉡ ‘정신적 사건’
①	a	b
②	a	c
③	b	a
④	c	a
⑤	c	b

◆ 19 LEET 언어이해 19~21번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신 문제는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 묻는 오래된 철학적 문제이다. 정신 상태와 물질 상태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원론이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졌으나, 신경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그 둘은 동일하다는 동일론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정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물질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인간과 정신 상태는 같지만 물질 상태는 다른 로봇이 등장한다면 동일론에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기능적·인과적 역할로써 정신을 정의하는 기능론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기능론에서는 정신이 물질에 의해 구현되므로 그 둘이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원론과 다르면서도, 정신의 인과적 역할이 뇌의 신경 세포에서든 로봇의 실리콘 칩에서든 어떤 물질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동일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신 상태에는 물질 상태와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원론에서는 ‘나’가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는 분명히 경험하는 그 느낌에 주목한다. 잘 익은 토마토를 봤을 때의 빨간색의 느낌, 시디신 자두를 먹었을 때의 신 느낌, 꼬집힐 때의 아픈 느낌이 그런 예이다. 이런 질적이고 주관적인 감각 경험, 곧 현상적인 감각 경험을 철학자들은 ‘감각질’이라고 부른다. 이 감각질이 뒤집혔다고 가정하는 사고 실험을 통해 기능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나에게 빨강으로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초록으로 보이고 나에게 초록으로 보이는 것이 그에게는 빨강으로 보인다는 사고 실험이 그것이다. 다만 각자에게 느껴지는 감각질이 뒤집혀 있을 뿐이고 경험을 할 때 걸로 드러난 행동과 하는 말은 똑같다. 예컨대 그 사람은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에서 똑같이 초록 불일 때 건너고 빨간 불일 때는 멈추며, 초록 불을 보고 똑같이 “초록 불이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각질이 뒤집혀 있는지 전혀 모른다. 감각질은 순전히 사적이며 다른 사람의 감각질과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와 어떤 사람의 정신 상태는 현상적으로 다르지만 기능적으로는 같으므로, 현상적 감각 경험은 배제하고 기능적·인과적 역할만으로 정신 상태를 설명하는 기능론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논박이 가능하다.

㉠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에 의한 기능론 논박이 성공하려면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색 경험이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두 경험이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두 사람의 색 경험 공간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색들이 가지는 관계들의 구조는 동일한 패턴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빨간색 경험과 노란색 경험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특성들이 다른 사람의 빨간색 경험(사실은 초록색 경험)과 노란색 경험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특성들과 동일해야 한다. 그래야 두 사람이 현상적으로 다른 경험을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동일하기에 감각질이 뒤집혔다는 것이 탐지 불가능하다. 그러나 색을 경험한다는 것은 색 외적인 속성들, 예컨대 따뜻함과 생동감 따위와도 복잡하게 관련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색 경험 공간이 비대칭적이게 된다.

㉡ 빨강-초록의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은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가 빨간색으로 보일 것인데, 이 경우 그가 초록이 가지는 생동감 대신 빨강이 가지는 따뜻함을 지각할 것이기 때문에 감각질이 뒤집히지 않은 사람과 다른 행동을 보일 것이다.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은 색 경험 공간이 대칭적이어야 성공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이 사고 실험에 의한 기능론 논박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동일론에서는 물질 상태가 같으면 정신 상태도 같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 ② 이원론에서는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각질이 어떠한지 확인한다.
- ③ 기능론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물질 상태는 달라도 정신 상태는 같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④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은 기능론으로는 정신의 인과적 측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한다.
- ⑤ 이원론과 기능론은 정신 상태를 갖는 존재의 물질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20. [비판]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 경험 공간은 대칭적이어서,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현상적으로 동등하고 기능적으로 다를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
- ② 색 경험 공간은 비대칭적이어서,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현상적으로 다르고 기능적으로 동등할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
- ③ 감각질이 뒤집히지 않은 사람은 입력이 같으면 출력도 같으므로, 그의 감각질이 뒤집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탐지할 수 없다.
- ④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은 입력이 같아도 출력이 다르므로, 그의 감각질이 뒤집혔다는 사실은 탐지할 수 없다.
- ⑤ 정신 상태의 현상적 감각 경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능적 역할만으로 정신 상태를 설명할 수 없다.

21.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과 ㉡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빨강과 초록의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 따뜻한 물로 손을 씻으러 세면대로 갔다. 세면대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쪽지는 빨간색으로, 차가운 물이 나오는 쪽지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다.

- ① ㉠이 성공한다는 측은 ㉡에게는 빨간색 쪽지가 초록색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겠군.
- ② ㉠이 성공한다는 측은 ㉡이 빨간색 쪽지를 보고 “이게 빨간색이구나.”라고 말한다고 설명하겠군.
- ③ ㉠이 실패한다는 측은 ㉡이 빨간색 쪽지를 보고 따뜻함을 지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④ ㉠이 성공한다는 측과 실패한다는 측 모두 ㉡이 빨간색 쪽지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⑤ ㉠이 성공한다는 측과 실패한다는 측 모두 ㉡이 빨간색 쪽지와 파란색 쪽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하겠군.